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9월 14일(일) 제1556호

지금 여기, 사도행전!

9월 16일~10월 23일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사전 캠페인, 특별순예배, 온누리사역축제(OMC) 등 개최

온누리교회가 오는 10월 6일(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주제로 9월 16일(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이어진다. '사전 캠페인', '특별순예배', '온누리사역축제(OMC)' 등이 진행된다.

'40주년 사전 캠페인'은 9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어진다. 40주년 축하 웹페이지 론칭을 시작으로 매주 1~2편씩 40주년 관련 영상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다. '은혜의 40년', '작은 시작', '부흥의 기억', '선교와 나눔', '다시 새롭게', '세대를 잇다', '비전의 선언' 등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창립부터 성장, 비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40일 묵상 캠페인, 사진전, 부흥회, 토크쇼, 공모전, 마라톤 대회 등도 개최한다.

특별순예배도 드린다. 9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5주 동안 한다. 1주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2주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3주 '일대일은 온누리에 주신 선물입니다', 4주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5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를 주제로 순예배를 드린다. 순장들에게 매주 이재훈 위임목사의 강의 영상 및 찬양 영상을 제공한다. 특별순예배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와 순이 참여한다.

2025 온누리사역축제(OMC)는 10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역사와 철학,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21일(화) '교회, 복음으로 서다!', 22일(수)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 23일(목)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 부흥집회: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 이재한 선교사
★ 주례강의: 이재훈 목사 Christopher Wright 박사 Nelson Jennings 박사 이인용 장로 유병국 선교사 류현모 교수 김경훈 집사

· 회보: 사전등록 7만원, 일반등록 10만원 | 하나은행 228-910021-97804 온누리교회 온누리행사
· 등록 문의: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 행사 문의: 02-3215-3234 / 02-3215-3122 / 02-3215-3534

2025. 10.21(화)~10.23(목)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강의 및 패널토의, 집회 등을 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성도, 파송 선교사, 복음과도시 이사회, 국내외 인사 및 교계 리더십, 농어촌 교회 및 도시미자립 교회 목회자, 성도 등 2천5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성

도들은 10월 12일(일)까지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등록 문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행사 문의: 02-3215-3234(3122, 35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 나눔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19일까지 순, 개인별 현금 및 나눔 대상자 접수

2025 사르밧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참여하는 순은 10월 19일(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을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봉헌하면 된다. 현금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65,000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로 기재해서 보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도 가능하다. 개인 참여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도 모집한다.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이다. 나눔 대상자 접수는 10월 19일(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서빙고: 25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공동체 이름과 공동체 담당목사, 대표장로 승인 여부를 기록해서 보내야 한다(예: 000공동체 000 목사님과 000 대표장로님께 승인 받음). 이메일을 보낼 때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발송해야 한다.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10월 19일(일)까지 담당자가 대상자 리스트를 취합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신처로 접수하고, 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 간사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9월과 10월은 'CGN 후원의 달'

9월~10월은 'CGN 후원의 달'이다.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행사 및 특별 방송, 이벤트가 이어진다.

9월 20일(토)과 21일(일)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CGN 후원 및 약정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796-2243), 홈페이지(cgnkorea.net)에서 참여하면 된다.

후원자 참여 이벤트는 9월 20일(토)과 21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진행된다. 사진전과 포토 부스 등을 운영한다. 특별방송에서는 김재원 아나운서와 개그우먼 김효진이 사회를 본다. CGN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알리고, 새롭게 나아갈 비전과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한다. 문의: 02-796-2243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 개강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가 개강한다.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서빙고 이천만광장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따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과 신앙고전을 읽고 나누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간식을 겸비한 교제 시간을 가진 후, 10시부터 공동체 성경읽기와 신앙서적 읽기로 진행된다. 신앙서적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눈으로 읽는다. 문의: 010-5603-5500

2025 하비스트(Harvest) 'Renewal'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

2025 하비스트(Harvest)가 'Renewal'을 주제로 오는 10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막 오른다. 올해 하비스트에서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배경으로 영적 회복과 갱신을 주제로 메시지가 들이 선포된다. 이주민들이 자신과 민족의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를 회개하

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비스트 첫째 날에는 전국에서 모인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나라별 국제문화 축제와 예배별 패션쇼가 열린다. 둘째 날에는 인도네시아 찬양팀과 함께하는 주일예배와 성찬식이 이어진다. 같은 날 오후에는 Mini Nations Tour가 열린다. 13개 국가 부스를 돌면서 나라별 문화

체험을 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경험한다. 저녁집회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묵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셋째 날에는 이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며, 'Renewal' 세리머니를 할 예정이다.

문의: 031-491-9650 / 박지혜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전쟁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 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전쟁 승패의 비결이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승리의 법칙입니다.

아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모세가 이전에 그들에게 명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세겜 땅 에발 산에 도착하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두 차례나 명했습니다(신 11:29, 27:3-4).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연이어 정복했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다른 도성을 정복하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의 저항이 없는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위해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멈추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모세가 당부한 것입니다. 모세의 당부를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전쟁 같습니다. 치열한 삶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파묻혀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을 조율하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율하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당부했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다

여호수아 8:30~35

“에발 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두 번이나 당부한 이유

세겜은 에발 산과 그리스 산 사이의 계곡에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이곳에 묻힙니다. 단지 역사적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에발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기 때문입니다(창 12:6~7).

세겜 땅이 중요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땅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하신 장소가 중요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600년 정도 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서,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고, 그는 험혈단신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온 이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6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주도록 모세가 두 번이나 당부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그곳에서 행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신 27:5~8). 첫째,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지침들이 주어집니다. 제단을 에발 산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스 산에 제단을 세우지 않고,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 산에 제단을 세우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발 산은 우리의 현재 상태, 실존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희생의 제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에발 산입니다. 그 한복판에 제단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

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갈 3:13).

에발 산에 세워진 제단은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단,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발 산에 세워지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단들은 한결같이 화려하고 온갖 인간이 상상한 이미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은 순수한 자연석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제단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의와 생각도 가미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제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번제고,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번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번제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기에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기억하게 하라!”

둘째,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계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와 언약의 법계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스 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 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수 8:32~35).

첫 번째는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책을 다시 돌 위에 새기고, 석회를 바르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에발 산에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읽어주었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변화를 말씀합니다. 제단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죄 받은 에발 산 위에 세워진 제단에 율법이 새겨진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피가 흐르고, 교제가 회복된 자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함께 낭독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많은 사람이 문맹이었고, 인쇄 기술이 없었던 시대였기에 함께 낭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급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에 성경이 낭독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 자신이 해석자가 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는 경청자가 됩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되심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성경읽기와 경청공동체로 자신을 형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읽는 경청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주의 산 에발 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약속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세계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주성대 장로
(동대문중랑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대표장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트로트 여가수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분이다. 인상적인 멜로디와 후렴구가 있는 노래이다 보니 제목에서 흥겨운 파티를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실은 ‘Amor Fati’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라틴어 문장이다. 이는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Nietzsche)의 사상과 연관이 있다. 인간이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감정에 충실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니체를 통해 보이는 무신론적 세계관은 ‘느끼는 대로 살라. 후회하지 말라. 인생을 즐겨라’라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감정 그 자체를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 내 감정과 운명에 나를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인생의 유익미함을 보기 때문이다.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방

식’이다. 흔히 선글라스에 빗대어 말한다.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 보는 사물의 색깔이 달라지므로 선글라스 종류에 따라 사물을 보는 시각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세계관은 선글라스처럼 쉽사리 뺏다 꺾다 하는 단순한 것은 아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pre-supposition)’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 교육, 직업 그리고 나라와 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어떤 ‘전제’를 갖고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와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각자마다 다양한 결론을 낼 것이다. 세계관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좌우한다. 언어, 행동, 습관 등으로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은연중에 알 수 있다.

세계관을 설명할 때 삶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대서사시 또는 메타 내러티브, Meta-narrative)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 여러 히어로와 빌런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와 사건이 얹혀있다. 주인공 간의 관계나 사건 전후에 숨겨진 복선을 시리즈 한 편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영 수월하지 않다. 적어도 ‘마블 세계관’이란 것을 파악하고 영화를 봐야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영화

시리즈에도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를 이루어간다. 이처럼 각 세계관도 대서사시,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 그 개념을 설명하게 된다. 성경적 세계관의 대서사시, 메타 내러티브를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성경적 세계관 이외의 세속적(유신론적, 무신론적 세계관 모두 통칭) 세계관도 이와 같은 메타 내러티브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뜻 봐도 어렵지만 한 ‘세계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 안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한다. 그들의 양과 양치기 무리가 같이 생활할 수 없는 문제로 정착할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풍요로운 동쪽 땅을 선택한다. 롯의 세계관에는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물질주의 세계관’이 내재해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관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서로 다른 두세 가지 세계관(이야기)이 혼재하면서 편의에 따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의식 차원에서 작동하지만,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작동한다. 우리 깊은 내면에 하나님

의 말씀과 부딪치는 세속적 세계관이 이야기 형태로 은밀하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은밀한 세계관들은 문화를 통해 들어온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고, 안으로는 세상에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혼합된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둘째,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삶 전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사조가 스며든 우리의 이야기(대서사시; Meta narrative)는 하나님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은밀한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혼자만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산다고 해서 침투하는 균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소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비전이 있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위한
‘온누리세계관스쿨 기초반’
양재(1~4강 온라인, 5강 대면): 9/18~10/30
(매주 목요일, 추석 연휴, OMC 주간 휴강)
서빙고(대면): 10/14~11/18
(매주 화요일, OMC 주간 휴강)

특별기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세상

지난주 스코틀랜드에서 12세 소녀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는 그 소녀가 칼과 손도끼를 들고 한 남성을 향해 소리치며 물러나라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소녀는 “자신과 여동생이 성희롱당하고 뒤따라왔다”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자신과 아내가 쇼핑을 가던 중 소녀들이 먼저 다가와 자신에게 욕설하며 불법 이민자라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불가리아 출신이지만 합법적으로 스코틀랜드에 거주 중이었다.

경찰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성희롱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소녀를 기소하는 데 사용된 영상은 남성이 활영한 것으로 그가 소녀에게 다가가며 칼과 도끼를 꺼내라고 부추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소녀는 뒤로 물러나며 남성에게 손대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는 명백히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명백한 것은 지금 영국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해결되어야 할 여러 질문 중 하나는 ‘도대체 왜 이 소녀가 이런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영향력 있는 인

물이며, 성전환 후 원래 성별로 돌아온 시네이드 왓슨은 X에서 자신도 같은 나이에 칼을 들고 다녔었다며 “스코틀랜드의 노동 계층 소녀들은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사람들의 후원으로 진행된 ‘강간 갱단 조사(Rape Gang Inquiry)’에 따르면, 잉글랜드 내 85개 도시에서 강간 갱단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외면하거나 피해자인 소녀들보다 주로 파키스탄 출신 남성 가해자들을 더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당 정부는 수년 동안 질질 끌다가 최근에서야 이들 갱단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시작했다. “처참하다”라고 평가받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비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체포 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걸 우려해 ‘사회적 통합’을 이유로 방관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들이 상류층 출신이었다면 과연 똑같이 행동했을까?

올해 여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15세 소녀가 한 주점 뒤에서 대낮에 불법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 그의 변호사는 범행이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다고 주

장했다. 그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추방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6만 8천 건이 넘는 강간 사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2000년 대비 거의 7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던디 사건’에서 누가 가해자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실패의 맥락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네덜란드에서는 17세 여성이 경찰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전화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용의자는 4일 전 강간 혐의로 체포됐던 망명 신청자로 그보다 5일 전에도 다른 여성을 폭행했던 전력이 있었다.

베를린에서는 시리아 출신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희롱하고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미국 남성이 나섰다. 이에 시리아인의 일행이 6인차찌리 칼을 꺼내 미국 남성의 얼굴을 뼈가 드러날 정도로 베었다. 경찰은 범인과 함께 있었던 마약 밀매 전과가 있는 시리아 남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왜 아무도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독일 남성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섰으면 내가 체포됐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자국민보다 이민자들에게 법적으로 더 관대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다. 법원이 폭력범들을 풀어줘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방치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다. 하층계급 소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사회적 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희생시키는 사회는 악에 굴복한 사회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 5:20).

이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고다. 지금 서구 사회는 그 선을 넘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하며,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 존 스톤스트리트, 글렌 선샤인
원문: breakpoint(20250901)

9~10월은 CGN 정기후원의 달 ① 끝까지 CGN_ 박혜원 권사 ② 함께 CGN_ 조혜련 집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박혜원 권사의 대를 잇는 신앙 그리고 후원의 이유

‘함께! 미디어 선교’라는 비전을 따라 20년을 달려온 CGN이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9월과 10월 ‘CGN 후원 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후원자가 바로 CGN의 이름 없는 선교사다.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CGN 걸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 박혜원 권사(송파A공동체)다. 그녀는 남편 故 배종수 장로와 함께 CGN 시작부터 동행했고, 그 유지를 이어받아 ‘끝까지 CGN’ 곁에 머물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박혜원 권사(만 79세)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한다. ‘너 근심 걱정 말 아라’(찬송가 382장)를 나지막이 읊조리고, 〈시편〉91편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루를 연다.

4년 전, 평생의 동역자이자 남편이었던 故 배종수 장로(前 CGN 실행위원장)가 천국으로 떠나고 박혜원 권사는 깊은 슬픔 속에 멈춰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렀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그때 붙잡은 게 바로 이 말씀과 찬양이었다. 박혜원 권사에게 이 말씀은 명약이고, 찬송은 새 힘이다.

박혜원 권사에게 말씀과 찬양이 ‘생명줄’이었다면, CGN과의 동행은 가족을 기억하고,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사랑줄’이다. 그 사랑의 시작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내기 신앙인 부부와 CGN

박혜원 권사는 오래도록 불교 신자로 살았었다. 매일 아침 조계사를 찾아가 108배를 드리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10대 시절 방향하던 둘째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 문제로 애태우던 어느 날, 지인이 무심코 던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교회에 가야 해”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 찾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래도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기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 미숙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박혜원 권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남편 故 배종수 장로였다. 박 권사가 신앙을 갖게 된 그 시기, 당시 무교였던 남편 배장로의 마음에도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배 장로는 영국 여행에서 만난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따뜻한 삶과 그 집 벽에 걸린 예수님 초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남편에게 박 권사가 “여보, 우리 이제 교회에 나갑시다”라고 권면했고, 두 사람은 물 흐르듯 온누리교회에 출석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부부는 그날 이후 30여 년 동안 매일 새벽예배와 각종 양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굳건히 세워져 갔다. 그 아



기도와 후원으로 CGN과 동행하는 박혜원 권사(왼쪽), CGN ‘짜장데이’를 섬기고 있는 박혜원 권사와 故 배종수 장로(오른쪽).



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CGN을 통해 익어갔다.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갖게 된 부부는 늘 ‘복음에 빛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다. 선교지로 떠날 용기도, 노방전도를 할 성격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故 하용조 목사가 강단에서 CGN 개국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과연 일개 교회가 방송국을 할 수 있을까’라며 모두가 반신반의하던 그때, 이들 부부의 입술에서 동시에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다.

“여보! 우리가 할 건 저거다!”

CGN 개국은 선교를 직접 떠날 형편은 못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었다. 그렇게 새내기 신앙인 부부와 CGN의 인연이 시작됐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CGN과 동역을 결심했고, 20년 넘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기도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다.

진짜 식구(食口), CGN

박혜원 권사에게 CGN은 후원하는 방송국을 완전히 넘어선다.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진짜 ‘식구(食口)’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짜장데이’라는 아주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박 권사는 CGN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장면을 대접한다. 그 시작은 단순했다. 군부대 사역 중에 자장면 한 그릇 맛보는데 CGN 직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군부대에 사역하러 갔다가 정말 맛있는 자장면 업체를 알게 됐어요.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먹고 나서 속도 편했고요. 그 자장면을 먹는데 문득 CGN 직원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처에 식당도 마땅치 않은데, 우리 CGN 직원들 먹이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마음에 대접을 시작했어요.”

故 배종수 장로 생전부터 시작된 ‘짜장데이’는 CGN 직원들이 연차도 쓰지 않고 손꼽아 기다리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박혜원 권사는 그 흐뭇한 모습에 남편 소천 이후에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홀로 감당하기 벅찰 법도 한데, 그녀는 행복만 고백했다.

“처음에는 자식들 좋은 음식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CGN 식구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CGN 직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을 선물 받고요.”

CGN의 식구로서 박혜원 권사가 놓치지 않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 바로 CGN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다. 박 권사는 회심 이후 33년째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제목에 CGN이 빠진 적이 없다.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CGN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CGN 후원도 20년이 넘었다.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저축해둔 거액을 후원한 적도 있다.

“CGN은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족을 위해 쓰는 돈도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제

가 CGN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CGN은 외부의 입김이나 상업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자식이 좋은 일을 하면 부모는 당연히 지원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CGN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 콘텐츠들을 계속 제작하도록 후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CGN!

박혜원 권사의 신앙과 CGN 후원이 대를 잇고 있다. 두 아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신앙의 가정이 되었고, 가족 모두가 CGN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박 권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현금(후원)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신앙 교육입니다. 저희 가정은 손주들 이름으로도 CGN을 후원합니다. 아직은 부모가 내주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마음을 배우도록 단돈 천 원이라도 CGN을 후원하도록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저처럼 전도하기 쉽지 않거나 선교를 못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요? 그러면 꼭 CGN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CGN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796-2243

맛있는 말씀 해설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영적(靈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면 ‘육체적’이라는 개념과 대비해서 이해하곤 한다. 이를테면 “저분은 영적인 분이야”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 사람은 육체적 유혹을 초월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의 반대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깨닫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영적’이라는 단어는 육체든 정신이든 유한한 인간적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이해한 채 <로마서> 12장 1절을 마주하면 다소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는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곧 ‘영적 예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이라는 개념을 육체와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몸과 영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인데, ‘로기코스’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납득될 만한 것’을 뜻한다. ‘라트레이아’는 ‘봉사, 섬김, 헌신이 기초된 예배’를 말한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치에 맞는 예배, 합리적인 예배, 납득이 되는 예배’로 번역할 수 있다.

보통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뉴마티코스’를 사용한다. 신령한 몸(고전 15:44), 신령한 노래(엡 5:19) 등 육체와 구별되는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프뉴마티코스’가 아닌 ‘로기코스’를 사용한 것은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영적 예배로 몸을 드리라”는 바울의 권면은 자신의 몸에 어떤 물리적 가해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님은 확실하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행위를 미워하셨고, 제의적 목적으로 몸에 상처

를 내거나 자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 몸을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바울의 권면은 영과 몸을 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전인이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육체적 행위로만 완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성적 생각만으로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예배하는 이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의 일상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이다.

영적 예배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단지 예배당에 몸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반대로 몸은 부재한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만 예배당에 있다고 해도 예배라 할 수 없다. 예배는 구약의 희생 제사처럼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제물로 나의 삶이 드러지는 것

을 의미한다.

누가 보더라도 내 모습이 예배라 인정할 수 있는 모습,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납득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며, 인내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예배자 됨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어졌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드러왔던 예배를 말씀 앞에 돌아보고 진정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박근범 목사
(김포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9월 15일~21일까지
<로마서> 6:8~8:30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악한 세상에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정체성이 필요하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

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죄의 삶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목상포인트 2: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비춰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지는 못한다.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인지 묵상하자.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기에 얽매던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율법 조문의 목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 바울은 이런 비참한 자신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목상포인트 3: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이유와 자결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라야 그리스도

의 사람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도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나의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나의 지체를 거룩하게 사용하자.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도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아닌 자유함으로 살아가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자. ▶나를 죄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 단호히 거부하자.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정의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가정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재정난으로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급여가 밀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재정이 안정되어 밀린 급여가 모두 해결되고 꾸준히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힘겨웠지만, 감사하게도 여러 이웃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져 급여 문제가 정상화되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빛진 마음을 잘 갚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얼마 전, 전세 재계약을 마친 지 불과 닷새 만에 집주인의 변심으로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부부는 약 3주 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여윌 돈도 전혀 없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으로 안정된 거처를 속히 마련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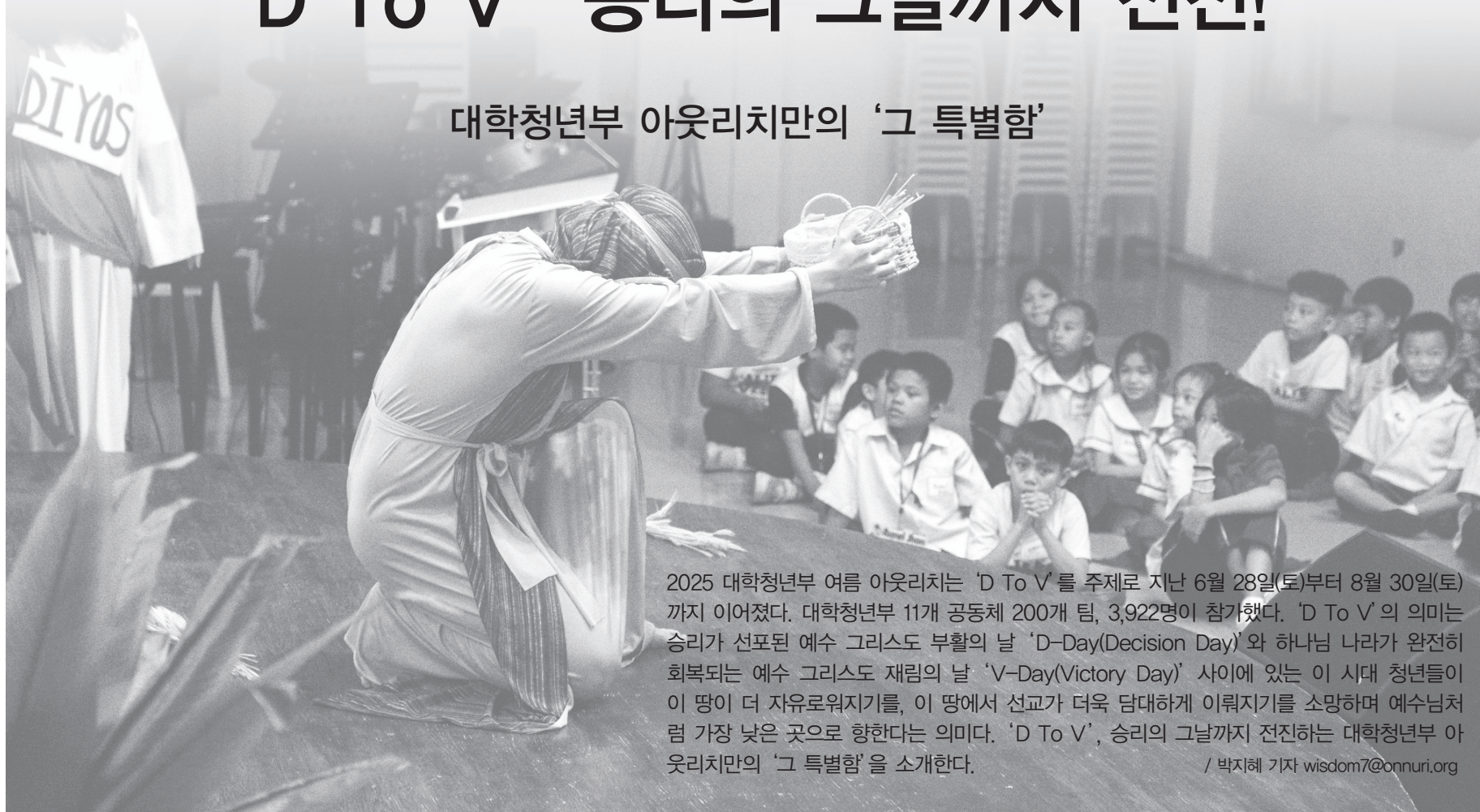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로 인해 부부가 서로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연합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2025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결산

‘D To V’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

대학청년부 아웃리치만의 ‘그 특별함’



2025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는 ‘D To V’를 주제로 지난 6월 28일(토)부터 8월 30일(토)까지 이어졌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200개 팀, 3,922명이 참가했다. ‘D To V’의 의미는 승리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 ‘D-Day(Decision Day)’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V-Day(Victory Day)’ 사이에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이 땅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이 땅에서 선교가 더욱 담대하게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의미다. ‘D To V’,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는 대학청년부 아웃리치만의 ‘그 특별함’을 소개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숫자만 봐도 올해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6월 28일(토)부터 8월 30일(토)까지 이어진 대학청년부 아웃리치에 국내 136개 팀 2,951명, 해외 64개 팀 971명, 총 200개 팀 3,922명이 참가했다.

국내 아웃리치는 경남 21개 팀, 강원 18개 팀, 전북과 경북 각 15팀, 전남 14개 팀, 충남 13개 팀, 제주 8개 팀, 서울·경기 9개 팀, 충북 4개 팀, 인천 1개 팀 등 88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해외 아웃리치는 동북아시아 14개 팀, 동남아시아 11개 팀, 중앙아시아, 서·남부아시아, 아프리카 각 4개 팀, 유럽 3개 팀, 서태평양, 남태평양 각 2개 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각 1개 팀 등 총 26개국에서 이뤄졌다.

유연함, 그리고 추진력

대학청년부 아웃리치만이 가진 특별함은 ‘유연함 그리고 추진력’이다. 물론, 청년세대는 장년세대 만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 그러나 세상 흐름과 문화의 변화에 익숙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이 유연함이 아웃리치에서 빛을 발한다. 선교지 또는 현지 상황과 문화를 빨리 파악하고 흡수해서 주민들이 낯선 이에게 가지는 편견과 경계를 허문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삶 속

으로 재빨리 스며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추진력도 으뜸이다. 그 추진력 덕분에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

대학청년부 아웃리치만이 가진 그 특별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허브대학부의 필리핀 톤도 아웃리치다.

쓰레기 매립지에 형성된 톤도 마을 주민들은 썩어가는 쓰레기를 뒤져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 그 환경과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모른다. 오죽했으면 그곳에 도움을 내미는 손길조차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온누

리교회 청년들은 달랐다. 주저함이라곤 없었다. 그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밀어붙이는 그 특유의 추진력이 나타났다. 그 힘으로, 그 특별함으로 톤도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교제했더니 어느새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미는 손을 덥석 잡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허브대학부 아웃리치팀이 보여준 유연함과 추진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낮은 곳에서, 승리의 그 날을 노래하는 모습을 참 많이 닮아있었다. 그 모양대로, 그 처지대로, 그 필요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대학청년부 아웃리치만이 가진 ‘그 특별함’이다.

아웃리치 참가자 간증

힘 있게 피어난 들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 가던 무렵, 필리핀 아웃리치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일명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톤도에서 차세대 사역을 하는 아웃

리치였다. 사역 보고를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톤도 땅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 마음을 소중하게 품고 다시 열린 필리핀 톤도 아

웃리치에 참가했다.

지난 7월 8일, 필리핀 톤도에 도착했다. 톤도는 영적 죽음을 종류별로 보여주는 부스 같았다. 구멍가게에 앉아 공허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엄마와 그 옆에 방치 되어있는 아기, 도박장에서 게임하는 초등학교생들, 티셔츠 한 장 걸치고 길거리에 서 있는 청소년 임신부, 누구도 치우려 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즐비했다. 복음 없는 삶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성령님은 내가 느끼는 그 아픈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과 톤도에 널브러진 그 많은 물리적인 쓰레기에 앞서 치워야 할 게 죄와 우상이라는 마음의 쓰레기임을 깨닫게 하셨다.

필리핀 아웃리치팀은 7박 8일 동안 김숙향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Love Tondo Community Ministry’에서 네 번의 어린이 사역, 청소년 Revival 부흥회, 가정방문, 체육대회, 청

소년 진로세미나, 그리고 두 번의 주일예배를 드렸다. 사역하면서 어린이 350명과 청소년 150명을 만났고, 28가구를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톤도의 다음세대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톤도의 차세대들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힘 있게 피어난 풀꽃 같았다. 그들을 통해 언젠가는 쓰레기가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변화될 톤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이어진 아웃리치에서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영적성장도 이뤘다. 아웃리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교제를 이어 나가고 있다. 정기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끝까지 톤도를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이다.



조은별 자매
(허브대학부)

한터공동체
캄보디아

감사만 남았다!

세 아이와 함께 첫 번째 해외 경험을 의미 있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청만 하면 편하게 있다가 8월 14일에 떠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6월부터 준비 모임이 시작되고, 매주 모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진짜 부담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였다. 가장 걱정했던 15개월 막내 아이가 아니냐 다들까 비행기에 타자마자 애타게 물을 찾으며 울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잠을 청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속상했다. 마음속으로 ‘내가 왜 아웃리치를 간다고 했을까’를 되뇌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웃리치 신청 전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토록 아웃리치를 기다리던 둘째 아이(4살)마저 캄보디아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집에 가서 자겠다고 떼를 부렸다. 아직 사역은 시작도 않았는데, 벌써 에너지가 다 빠져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다.

사역 첫날, 캄푹 지역의 꼬끼마을 가정방문 사역, 둘째 날 프로빠양트머 초등학교와 마을 잔치 사역, 셋째 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예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준비 모임을 할 때부터 세 아이가 사역에 짐이 될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사역에서 전혀 방해되지 않게 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짐으로 여겼던 내 마음이 오히려 짐이었음을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은혜와 감사를 체험한 한터공동체 아웃리치.

깨달았다.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보내셨는지, 이 모든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마을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풀을 뜯어 먹는 소들,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마당에서 모이를 먹는 닭들을 보면서 내가 어릴 적 살던 북한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흙바닥에서 뛰어놀고 나무를 타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내 어린 시절 같아서 전

혀 낮설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마을 사역을 하면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 그때 깨달았다. 북한을 떠난 지 15년 되었는데,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지금도 북한에 살았다면, 그들의 삶이 곧 내 삶이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나는 아이들 유모차가 생겼다고 감사한 적이 없다. 아기 띠를 새로 샀다고 감사한 적도 없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엄마들이 유모차를 신기해하면서 만져보고, 아기 띠를 살펴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내 안에 감사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막연하게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긴장되고 부담이 가득했던 아웃리치를 마치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매년 아웃리치를 가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을 남편과 나에게 동일하게 주셨다. 물론 이 마음을 갖게 된 건 팀원들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아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모든 팀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다른 소망도 생겼다. ‘언젠가 북한으로 아웃리치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삶에 치여 있고 있던 북한 땅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켰다. 후회로 시작된 아웃리치의 끝은 감사만 남았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박수향 성도
(한터공동체)

경기A공동체
중앙아시아 T국

가장 큰 은혜, 복음 전해진 순간

지난 7월 24일, 경기A공동체 황문규 목사와 9명의 순원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 14:8)는 말씀을 붙들고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T국 아웃리치 길에 올랐다.

T국은 해외 이주 노동에 의존해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다. 국토 93%가 산악지대이며, 인구 99.4%가 무슬림인 나라다. 독재 정권으로 모든 종교를 통제하며 탄압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땅이다.

2019년, 하나님은 T국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경기A공동체의 평범한 순원이었던 조요한, 박사랑 가정을 그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선교사 파송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다. 모든 것이 멈추고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2025년 7월, T국의 수도에 있는 공항에서 공동체 아웃리치팀과 선교사님 부부가 6년 만에 감격적으로 만났다. 그 반가움도 잠시, 신속하게 공항을 빠져나와 안전한 숙소로 도착해서야 교제를 나누고 도착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박사랑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 이후 처음으로 아웃리치팀을 맞이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조요한 선교사는 “공동체 식구들을 선교지에서 만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아웃리치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T국 선교 사역의 첫 열매인 M자매와 S자매의 세



경기A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너는 꽃이야’ 찬양을 부르며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다.

례식에 아웃리치팀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두 자매는 아웃리치팀이 도착하기 전에 4주 동안 현지 H목사에게 세례 문답 교육을 받았다. 세례 당일에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도 나눴다. 그리고 침례 세례를 했다. 물에서 나온 자매들을 향해 모두가 손을 뻗어 축복했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화관을 씌워주고 축하 선물도 전달했다.

아웃리치팀은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과 울동으로 성도들과 아이들을 축복했다. 아이들

을 찾아가 꽃 머리띠를 씌워주었던 진짜 꽃이 된 것처럼 기뻐했다. 아웃리치팀과 성도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어린이 인형극 ‘세 나무 이야기’도 무대에 올랐다. 인형극이 끝난 다음에는 어린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식재료로 한식을 만들어 성도들과 식탁 교제도 나눴다. 불고기와 잡채, 궁중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었는데 다들 정말 맛있게 먹었다. 여성 성도들에게는 마스크

팩으로 마사지를 해주며 힐링을 선물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할 거라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세례식에서 황문규 목사를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고, 영접 기도문까지 다 함께 따라 하게 하셨다.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지인 10명이 복음을 들었고, 영접 기도문도 같이 따라 했다. 청소년 B군(15세)은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배와 섬김, 블레싱을 통해 감동하고 어머니에게 “저도 H목사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B군에게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이혼을 당한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아웃리치를 마치고 맞이한 월요일 아침, 선교사님에게 감격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B군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며 H목사에게 요청했고, 조요한 선교사와 동역하는 L선교사가 B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복음을 전했다.

한다. 다음날 B군은 H목사의 집으로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주일예배에 참석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혜영 성도
(경기A공동체)

이슈(Issue) 바로보기!

법의 뿌리는 사랑이고, 사랑이 법의 완성이다

지난 7월 5일(토), 법조인 전도집회에 이어 ‘히든 파라다이스’라는 근사한 제목으로 로스쿨 전도집회가 열렸다. 전국 25개 국내 로스쿨과 한동 국제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 형식의 행사였다. 온누리교회는 전도대상자 초청을 주도한 로스쿨기독학생연합회(로기연)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온누리교회 법조인들이 멘토로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고, 결신율도 예상보다 높았다.

요새 법조인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따갑고,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법에 입문한 로스쿨 후배들도 당혹스러울 듯싶다. 그러나 법조인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직업이다. 비록 법조계에 대한 세간의 질타가 거셀지라도 법조인의 소명마저 무너지는 건 정말 곤란하다. 물론 법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법만으로 공동체를 규율하려는 건 오만이다. 그러나 어떤 부작용이 있든지 간에 ‘공동체’를 붙들고 지지해 주는 건 여전히 법이다. 법이 없으면, 그리고 법을 담당하는 법조인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장래가 불안해 보일 후배들에게는 미안한 마

음이 앞선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가 부족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는 당부하고 싶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하나 있다”고 말이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힘(고전 13:7)’이다. 그리고 결국엔 모든 걸 이긴다. 단지 미움과 분노만이 아니다. 절망에 둘러싸인 두려움마저 없앤다.

과연 법조인이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독일 신학자 펜넬베르그는 두 가지로 정의했다. 하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고, 또 하나는 ‘조인(助人)’이다.

먼저,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내 삶에 마주친 존재에 대하여 깊이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민감성이 사랑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타인이 경험하는 현실을 같이 모델링하는 능력,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은 고통을 수반하는 고도의 정신작용이다.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껍질을 깨뜨려야 생긴다. 악의 핵심은 강한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이다.

다음, 조인(助人)은 ‘타자를 한 인간으로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정복하고 형성해 가는 과업을 돕는 것’이다.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건, 사실 숭고한 일이다. 신의 영역일지 모른다. 하나님도 늘 인간을 도우신다. 특히 고통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돕는 건 변호사의 특권이다. 나도 의뢰인의 고통 곁에 있다 보니 역경이 사람을 궁지로 모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외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준다. 성찰과 변화를 불러오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묵묵히 억울함을 통과한 사람은 영적인 권위까지 부여진다.

다만, 인간은 가장 고상하고 고결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천박하고 잔인할 수 있는 존재다. 죄를 반복하는 사악함에 대한 안전망 구축도 법의 영역이다. 그러나 법의 규범적 정의는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마저도 형벌권의 행사를 통해 원래 상태로 돌리기려는 기대가 있다. 재판과 징벌이라는 과정을 통해 억울한 희생자는 걸러내고, 누우친 범죄자는 포섭한다는 희망 말이다.

판넬베르그는 “모든 정의의 형태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위한 창조적 해답을 찾는 게 법

조인의 직무”라 했다. 나도 동감한다. 법조인은 고루한 비문 해석자가 아니다. 법에 창조적 생생함을 불어넣는 ‘사랑’을 탐구하는 직업이다. 사랑은 불의의 구조, 바로 죄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렇다. 법의 뿌리는 사랑이고, 사랑이 법의 완성이다.

나는 법조계에 붙고 있는 풍랑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빛내실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다. 후배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을 탐구하는 법조인으로 잘 성장하면 좋겠다. 선배들이 후원하는 로스쿨 전도집회도 매년 열렸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단 5:11)’이 있기를 기도해 본다.



이은경 변호사
(OCC공동체,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사)

정주호의 홀리바디(Holy Body)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예로 들곤 한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날마다 자신의 체력과 기술의 한계에 맞닥뜨리며 그것을 이기고자 훈련한다. 멀리 갈 것 없이 덤벨을 들어 올리는 피트니스운동으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3kg 덤벨을 어제 5번 들었는데, 오늘 6번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면 단순히 반복 횟수가 1개 더 늘어난 게 아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번 더 들어 올렸다는 의미다. 운동을 단순히 운동으로만 이해하면 몸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게 된다. 하지만 운동을 그 이상의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운동은 아직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해 능력치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발견했더라도 정면으로 뛰어넘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뛰어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관 같다. 한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계를 만나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은 도중에 포기하고 좌절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을 할 때 체력적으로 힘든 강도를 감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 마음의 한계에서 오는 영적 싸움 내지 영적 전쟁이다. 이 마음은 평소에는 내면 깊이 도사리고 있다가 특정 상황이 되면 조금씩 피어오른다. ‘어제 운동 했으니 오늘은 쉬자’,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 오늘 하루는 나에게 보상을 주고 좀 많이 먹어도 될 거야’ 등 내 안에 서로 다른 두 생각이 대치하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어느 쪽 마음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내 생각의 중심과 균형을 잘 유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북미 원주민인 체로키족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두 마리 늑대’라는 유명한 지혜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화가 난 감정을 이야기하는 손자에게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 이야기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과 감정을 자주 되새기고 강화하느냐에 따라 인격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이야

기는 <갈라디아서> 5장 16~17절 말씀과도 연결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란 신체적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 의지하며 선에 대적하는 정욕과 욕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내 밖의 세상과 싸워 이기기도 전에 이미 내 안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패한 상태로 살고 있다. 자신과 싸움에서 항상 패배하는 사람은 세상과 싸울 힘조차 낼 수 없고, 싸워 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마음으로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자신과의 마음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 영적 근육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육은 동시에 보기도 해야 하지만, 따로 떼어 놓고 하나씩 봐야 한다. ‘나의 몸은 건강한가? 나의 마음은 건강한가? 나의 영은 온전한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고귀한 영·혼·육 중 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틈으로 나머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도 차례로,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 있

다.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한계 상황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며, 또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위로이자 응원이다.

오늘부터는 내 몸의 한계를 이겨내는 몸에게 주는 선한 먹이인 운동 습관과 내 마음에는 겸손과 친절, 사랑과 긍정, 절제라는 선한 먹이를 주는 습관, 내 영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의 먹이를 주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
(중종로공동체, 스타트레인대표, 재활과학박사)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가을, 시를 노래하다’

10월 13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가을, 시를 노래하다’ (이하 가을, 시를 노래하다)가 10월 13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콘서트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코드 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좌석당 2만 원이다. 구매한 티켓은 콘서트 당일 접수데스크(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로비)에서 수령하면 된다. 좌석은 콘서트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가을, 시를 노래하다’에서는 탤런트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

이 공연한다. 독일과 이탈리아 가곡 ‘Mattinata’, ‘Non ti scordar di me’, ‘Parla piu piano’, ‘Erlkonig’과 한국 가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진달래꽃’, ‘청산에 살리라’, ‘시간에 기대어’ 등을 노래한다. 강석우 집사가 직접 쓴 시(詩)와 작곡한 곡(이별의 시간, 가을 그리고 겨울, 4월의 숲속, 정녕 그리운 것)도 공개한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가을밤,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있는 곳으로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을 초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강석우 가곡’ 채팅창 / 홍하영 기자

11월 첫째 주 ‘열린순예배’

모든 공동체, 모든 순에서 기획 및 실행

11월 첫째 주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순에서 기획 및 실행한다. 열린순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린순예배 <가이드북> (QR 참고)을 순장들에게 배포한다. 열린순예배에 관한 상세한 실행 방법을 두 가지 버전으로 참고할 수 있다. A타입은 38분, B타입은 85분 소요된다.

열린순예배는 그동안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나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과 친구, 지인과 동료들을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열린순예배 가이드북 QR

/ 홍하영 기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참가자 모집

9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빙고 믿음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하 EHS)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총 3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9월 20일(토)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 개별 구매).

EHS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이어지고, 가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돕는 과정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문제’,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삶의 규칙을 세우라’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659-3577

/ 심예은 기자 y22un@onnuri.org

결혼코칭스쿨 1기 참가자 모집

9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빙고 믿음홀

결혼코칭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7일(토), 10월 25일(토), 11월 29일(토) 오후 2시 대학로 이룸(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진행된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 강미향 목사(두란노부부학교 전문강사) 부부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9월 21일(일)까지 구글폼(QR 코드 참고)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회차당 5만 원

(회차 전체 등록 시 할인).

결혼코칭스쿨은 결혼에 대한 자신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갖고, 결혼식 이후 결혼생활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5059-4459



/ 박지혜 기자

통일선교학교 3기 참가자 모집

9월 20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30분 온라인

통일선교학교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월 4일 휴강)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구글폼(QR 코드)이나 아이스쿨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신청할 때는 이름, 성별, 소속, 출생년도, 교재 수령 주소를 꼭 표기해서 보내야

한다. 회비는 3만 원(교재비 포함, 아웃리치 2만 원 별도). 수수료면 2학점이 부여된다.

통일선교학교는 통일과 관련된 주제의 강의, 현장 아웃리치, 토크쇼가 이어진다.

문의: 010-2951-1322

/ 심예은 기자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10월 18일부터 매주 토 오후 3시 양재 두란노홀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25일(토)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 별도

구입).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의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302-3482

/ 심예은 기자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지부가 개최한 의료캠프에서 현지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지부, ‘팔로리냐 난민촌 의료캠프’ 개최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지부가 지난 9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우간다 북부 팔로리냐 난민촌에서 의료캠프를 개최했다. 캄팔라 베데스다선교병원 한인 의료진과 협력해서 소아과, 내과, 외과 전문의들이 약 처방과 간단한 수술 등을 시행했다.

팔로리냐 난민촌은 의료 시설이 낙후되고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부실해서 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1천여 명이 넘는 남수단 난민과 우간다 주민들이 치료를 받았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 순장학교 참가자 모집

9월 28일부터 매주 일 오후 4시

온누리 순장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서빙고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21일(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온누리 순장학교는 온누리교회의 목회방향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순예배의 도전과 균형’,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 ‘순예배의 인도와 실제’, ‘순예배 인도를 위한 키워드’, ‘순장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736-6130

/ 심예은 기자

창조신앙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9월 21일부터 매주 일 오후 7시

창조신앙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10월 5일 휴강)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20일(토)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창조신앙아카데미는 성경 속에서 창조과학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4658-0987



시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

- 9월 14일(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가현의 우상이 무너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 9월 15일(월)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 9월 16일(화)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힘을 얻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 9월 17일(수) 이재훈 위임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 9월 18일(목)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 9월 19일(금) 출연진, 봉사자, 사역자가 성령님의 인도로 부족함 없이 섬기도록
- 9월 20일(토) 시가현과 일본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로칼럼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박공 장로
(신원산공동체)

〈온누리신문〉에서 “제자의 삶,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이기훈 목사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자연스럽게 책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를 집어 들었다. 이 책에서는 지금이 바로 ‘제자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과정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이끄시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은 특히 일대일제자양육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신분을 갖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는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로서 늘 일대일제자양육이 제자의 삶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서 감사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삶 속에 적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일터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가 공감할 것이다. 나 역시 장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직장에서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며 직장 신우회 등 여러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제자의 영성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이 책에서 ‘지금이야말로 제자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분명하게 짚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영적 성장의 네 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구원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 둘째,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단계, 셋째, 자기를 부인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단계다. 다만 50 페이지에서는 일대일제자양육이 이 네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동반자 과정과 양육자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나는 오랫동안 양육 사역을 해 오면서도 이 단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곧 제자의 삶’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나의 양육 활동에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특히 초기에는 교과서적 과정에만 치중했다. 내가 양육한 동반자들의 간증문을 읽어 보면, 단지 ‘양육자에 대한 감사문’을 써 내려간 글이 많았다. ‘어? 이게 아닌데?’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다시 양육자 과정을 공부했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기까지 걸어왔다. 만약 이 책을 더 일찍 접했다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조금 더 빠르게 경험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책을 통해 다시 배우고 점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2017년 발간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읽고 늘 ‘나는 제자인가, 단순한 팬인가?’라는 질문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열정과 노력을 보면 제자 같지만, 삶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정리하고 실천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기도하고 있다. 이 책이 말하는 제자의 정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삶의 나침반이자 마지막 여정까지 붙들어야 할 지표다.

책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는 단순히 읽고 지나칠 책이 아니다. 양육자라면 몇 번이고 곱씹으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실천해야 할 책이다. 나 또한 이 책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한다.

권사칼럼

생명의 빛 증언하는 ‘매미의 노래’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모처럼 새벽에 공원을 걷는데 사방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매미가 아침부터 울면 오늘 날씨가 덥다’는 속담처럼, 매미는 기온

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더 일찍 노래하기 시작한다.

매미의 노래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매미는 5~7년 동안 갇힌 땅속에서 벌레로 살다가 지상에 나와 한 달 남짓 살다가 죽는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짝짓기하려고 한 달 살다가 가는 매미의 짧은 생애가 서글프고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신앙과 과학을 연결한 성영은 교수의 글을 읽으며 그 의문이 풀렸다.

곤충학자 파브르가 관찰한 결과, 수컷 매미는 짝짓기 후에도 죽을 때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긴 시간 땅 밑 어둠 속에서 하찮은 벌레로 살다가 아름다운 몸매에 우아한 옷을 입고, 땅 위로 나와 빛을 보고 생명의 환희를 마음껏 노래한다는 것이다. 수컷은 목청껏 노래하고, 암컷은 알을 품은 채 〈창세기〉1장의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을 말없이 노래한다. 과학은 이 노래를 ‘짝짓기용’이라고 일축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 파브르의 관찰은 달랐다. 그제야 나는 매미의 노래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찬미하는 위대한 고백임을 깨달았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사 43:21).

한갓 미물인 매미조차 빛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24명의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역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밤에도 울어대는 매미의 소리가 어찌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외침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 보면 생기를 잃고 공허한 눈빛의 어르신들을 만난다. 지하철에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짜 빛 속에서 헤맨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답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얼굴을 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 덕분”이라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벧전 2:9).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골 1:26-27).

매미가 온몸으로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듯, 우리도 영생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온 존재로 드러내자. 가미술 같은 더위를 환희로 채우고, 공허한 눈빛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빛을 전하자. 나는 오늘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전도 가방을 든다.

신앙에세이

변대섭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 제24항은 ‘공동체 성경읽기’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문은 어느 한 단어를 생략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표현이 중요하지만,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성경을 신실하게 읽고 듣는 신앙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이 일을 위해 전 세계적인 협업을 이루며, 역사적 전통과 신앙고백 등이 깊이 참고되어야 한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의 닦을 내리는 것처럼 중요하고 또 유용한 방법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주되심을 선포하는 신실한 성경 읽기와 이를 실천하는 공동체는 교회의 현시대적 과제이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

구나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기 때문이다(히 4:12). 그러나 이 살아있는 운동력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말씀 위에 세운 견고한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적인 고민도 필수적이다.

오늘날에도 성경책을 펼치는 많은 신앙훈련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기보다 성경 강해나 다른 부가 자료를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말씀 읽기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성경을 한번 완독하거나 성경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끝났다’고 만족하며 성경을 덮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절대로 단기간 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신앙 여정이다. ‘성경 본문 자체를 읽고 듣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 강조된 귀한 전통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즉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훈련해 왔다. 성경에서도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한 사람이 낭독하는 것을 듣는 장면이 줄곧 등장한다. 이 공적 낭독은 공동체의 신앙적 각성의 출발점이 되었다.

온누리교회에서 ‘공동체성경읽기’는 제4차 로잔대회 이전부터 이미 강조되고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 왔다. 온누리교회 공동체성경읽기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예배에서의 공동체성경읽기(예배 시작 전 말씀 읽기, 서빙고 2부 새벽기도회)와 개인적으로 읽되 공동체로 묶여 성경읽기(각 공동체에서 매일 365성경 읽기 진도 공유하며 읽기), 그리고 공동체 성경읽기를 위한 주중모임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이 그것이다.

나는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의 담당 목회자로 섬겼는데 이 사역은 매우 특별했다. 말씀을 강해하고 적용점을 찾아줘야 하는 설교와 달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같은 회중으로서는 경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

성을 더 견고하게 해주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그 어느 시간보다 자유롭고 평안했다. 성도들 모두가 목회자의 목상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말씀 그 자체를 정확하게 듣고자 귀 기울이는 습관이 길러졌다. 교회에 처음 나와 세례를 받는 성도부터 오랜 신앙생활 경력을 가진 장로까지 하나 되어 말씀을 체험하며 공동체성경읽기의 유익을 실감했다. 성경은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한다(암 8:11). 지구상에서 성경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 앞에 서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말씀 없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더 심각해진다는 의미이다.

공동체성경읽기는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적 성경 읽기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사역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며, 독려하지도 않는 시류 속에서 분명한 대안이자 해법이 될 것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해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안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관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임정춘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am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마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t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철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illegible]

소천	복지재단	재정	광고
9/4(목) 서초B 이선복 성도 시무상 고 이지길 9/5(금) 강남C 강경희 권사 모친상, 이형석 집사 빙모상 고 김옥태 9/6(토) 중종로 강혜진 집사 부친상 고 강용범 9/6(토) 동작 이대영 성도 모친상, 유미 성도 시모상 고 김월희 9/7(일) 성동광진 이종연 권사 부친상 고 이규섭 9/7(일) 양천 이창호 성도 모친상, 오정아 성도 시모상 고 김태심 9/8(월) 성동광진 신지현 권사 부친상 고 이윤일 9/8(월) S보릿지 정미향 성도 모친상 고 김연희 9/8(월) 송파A 박태식 집사 모친상 고 지순화 9/8(월) 서초B 김영립 집사 모친상 고 우숙자 9/9(화) 중종로 전해정 성도 자녀상 고 배정윤 9/11(목) 강남B 김철규 성도 모친상 고 김태연 9/11(목) 강남A 이여진 성도 부군상 고 김중태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미미옹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종로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미미옹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미미옹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증서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합창단 모집 기간: 2025년 11월까지 모집: 세대 교류 및 소통을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내용: 합창 연습,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광장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교회협의회 헌금 매뉴얼에서 모바일헌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셔서요. 헌금온라인 안내 신용카드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온누리교회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건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r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메디엑세스 약사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연중 월 1회(선택 가능) 내용: 메디엑세스 의료사역 참가, 약품 준비 및 관리(자세한 내용은 문의) 신청 및 문의: 메디엑세스 사무국(02-570-7110), 카카오톡 '메디엑세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 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1, 3주 주일 연습 오후 1시 30분~3시) 문의: 김유미 010-3923-0416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심예은 140-026 서울시 용인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 자문동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개인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제17회 온누리캠퍼스 한마음축구대회 참가자 모집 일시: 10월 25일(토) 08:30~17:30 장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용인) 대운동장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및 성인가족 문의: 각 캠퍼스 축구팀			

CGN 함께! 미디어선교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10여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좌뇌의 손상을 입은 이순례 권사는
더 이상 글을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혼자서는 교회를 가기도,
성경을 읽기도 어려웠던 이순례 권사의 기도

**"하나님,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연히 발견한

'CGN과 함께 <일-일 통독>'

이순례 권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통해 하루 4번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CGN 정기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CGN과
함께 미디어선교에 동참하는



후원자 스토리
영상 시청하기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신규후원 QR



중액후원 QR